

北 보름새 7차례 미사일 발사...“언제 어디서든 목표타격”

김정은 “적들과 대화 필요성 없고 불의의 정황 핵대응태세 견지해야” 핵탄두 개발·7차 핵실험 강행 예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목표를 타격해 소멸하겠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뒤 10일 내놓은 공개 보도에는 최근 도발에서 북한이 얻어온 기술·전략적 효과와 의도가 명확하게 담겼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타격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제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주장했다.

그간 7차례 발사에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평소와 다른 다양한 시간대에 새로운 장소에서 쏘는 데 그 목적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공격에 나서기 위함이었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전개와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대응을 빌미로,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전력 투구하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노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북 태천 인근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았다. 28일에는 오후 6시 10분과 6시 2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SRBM을 2발 발사했다. 29일에는 오후 8시 48분과 8시 57분 평양 순천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2발, 이날 1일에는 오전 6시 45분과 7시 3분과 평양 순안에서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또는 KN-25로 추정되는 SRBM 2발을 각각 쏘았다. 또 지난 4일 오전 7시 23분께는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쪽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1발을 발사해 비행거리 4500km를 기록했다. 이어 6일 오전 6시 1분과 6시 23분 평양 삼석에서 동해상으로 KN-25, KN-23 추정 SRBM을 각 1발 발사하고 9일 새벽 1시 48분과 1시 58분 강원 문천(원산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KN-25 추정 SRBM 2발을 날렸다.

북한은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이라는 표현으로 유사시 즉 실전 상황에서 공세적 무력 사용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등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탄두’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한편 그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주장대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와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사일에 모두 소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실전 운용하면 한미의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가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화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전술핵탄두 개발과 위협을 키우기 위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8기 3개월간 직무평가 1위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8기 들어 실시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를 합쳐 3개월 연속 1위로, 도민들의 지지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달보다 6단계나 밀리면서 14위에 머물렀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2022년 9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김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 평가가 68.4%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

위로 지난 7월부터 연속 1위다.

앞서 김 지사는 7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조사에서도 긍정평가 71.5%, 8월 조사에서는 70.4%를 기록했다. 또 김 지사는 민선 7기 43개월 중 30개월 동안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지사는 민선8기 100일을 맞아 내년도 정부예산 8조 2000억원 확보 등 2년 연속 8조원 시대를 열었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예비후보지 선정, 농식품기후변화센터 예타 통과, 각종 평가에서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긍정평가 47.1%로, 지난 달보다 6단계나 떨어진 14위였다.

리얼미터 2022년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8월25일~8월30일, 9월23~28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해당 월 기준,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5%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통령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 지키겠다”

北 전술핵 과시에 대북 메시지

野 “극단적 친일국방” 규정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연이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친일 국방’ 프레임에 갇힌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맹 확대를 ‘극단적 친일 행위·친일 국방’으로 규정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균형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반등 32%

리얼미터 조사...0.8%P 상승

갤럽 조사 ‘잘하고 있다’ 2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의 의뢰로 지난 4~7일 전국 성인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3.7%), 부정 평가는 65.8%(매우 잘못함 59.6%, 잘못하는 편 6.3%)

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8%포인트 상승(31.2%→32%)하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66%→65.8%)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3%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각각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 2주 연속 하락(33%→28%→24%)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5%포인트(p) 상승(24%→29%)했다.

긍정 평가 이유 1위와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모두 ‘외교’로 같았다. 미국 순방 때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부주의한 말실수로 논란 자초했다’는 응답이 63%, ‘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을 유발했다’는 응답은 25%로 각각 조사됐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